

## 글로벌 석탄전문 공기업으로 도약



이 강 후  
대한석탄공사 사장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에너지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인간으로 치면 환갑을 넘은 기업이 된 것이다. 1950년 전쟁 중에 창립된 석탄공사는 그동안 약 1억 8천 만 톤의 석탄을 생산 공급하여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는 물론 민동산이었던 강산의 산림녹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기업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4월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고민에 빠졌다. 석탄공사는 매년 적자가 지속되는 등 부실한 공기업으로 낙인찍혀 있었다. 이는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실한 탄광을 정리하면서 석탄산업은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때 348개에 이르던 탄광은 모두 문을 닫고 현재는 석탄 공사 3개, 민영 2개 등 5개 탄광만 가동 중이다. 무연탄 생산 역시 석탄공사의 경우 1988년 522만 톤에서 현재 113만 톤 수준으로 78% 감소하였다.

정부가 가격과 생산량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생산규모를 달성할 수 없었고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은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외개발로 눈을 돌려 석탄공사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부채가 많은 공기업이 무슨 해외개발이냐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직접 몽골로 날아가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몽골 관방장관과 에너지부차관 등을 만나 석탄공사의 해외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 받았다.

특히, 이번 탄광인수는 지분확보를 통한 경영권을 인수하는 직접 개발 방식이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이나 호주 등 다른 국가의 경영권 인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이 좋은 기회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몽골 훗고르 탄광에 대한 인수 조인식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석탄공사 60년 역사상 첫 해외탄광 인수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며, 1천 만 달러에 탄광 지분 51%를 인수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직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외개발의 꿈이 실현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몽골은 석탄매장량이 1,750억 톤으로 세계 4위, 구리 매장량은 5,500만 톤으로 세계 2위 등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자원부국이다. 특히, 일본·캐나다·독일·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몽골 석탄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진출,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번에 인수한 훗고르 탄광은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개발 초기단계 노천탄광으로 탄광 운영과 개발을 석공 기술진이 직접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과 차별화될 것이며, 향후 해외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30일에는 한국동서발전(주)와 탄광 개발 및 현지 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MOU도 체결하였다. 석탄공사에서 유망한 해외탄광 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동서발전은 탄광 현지에 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Mine Mouth 개념의 윈윈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석탄공사는 석탄의 가스화에도 국내에서 선도적인 연구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하나인 석탄 이용기술을 활용한 가스화와 액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전남 화순광업소에 무연탄과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석탄 가스화 장치를 설치, 1일 10톤 규모의 가스화 설비가 시운전 중에 있으며, 향후 상용화시키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석탄은 현재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의 28%를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연간 약 1억 톤이 수입되며, 석유를 대체할 유일한 화석연료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석탄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대한석탄공사가 최고임을 국내외에 다시한번 확인시켜, 향후 새로운 60년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3,000여명의 임직원은 오늘도 지하 수 백 미터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2011년에도 해외개발 및 석탄가스화 등을 통한 글로벌 석탄전문 공기업으로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KEA